세계 茶문화·공예 한자리서 만나요

25~27일 국제 차공예박람회

세계의 차문화와 관련 공예를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린다.

(사)한국차공예문화협회는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2016 서울 국제차·공예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

전통과 현대를 공존하는 차·공예문화를 알리기 위해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차 재료 및 제품 △차 예술 및 문화생활 △차 생활 응용 전통 및 현대 공예품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시 품목으로는 차와 가공식품, 보조용품, 목공예용품, 관련 섬유 공예와 의류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차 생활 확산으로 차와 공예 관련 생산자와 소비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적 만남을 통해 차문화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055)324-0350 신성민 기자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 제9회 회원전시회 개최

23~29일 갤러리 경북서



조해종 작가의 '용두관음.'

전통미술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회장 김윤기)는 오는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경북에서 제9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 회원 22명이 참여해 불교 미술과 전통공예, 전통미술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 대해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은 "불화, 단청, 조각으로 시작해 건축, 전통악기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에 격려를 보낸다"면서 "이번 전시는 전통문화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깨우치게 하는 뜻 깊은 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기 회장은 "전통문화의 깊은 뜻과 아름다움을 현대사회에 걸맞게 재해석해 후세에 전달하는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2)737-8882 신성민 기자

"나와 당신, 우리의 인연 이야기 들어보세요"

광주서 힐링콘서트 여는 정율 스님

"지금 시국이 많이 어렵죠.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점검하고 마음을 위로했으면 해요. 이번 콘서트에서는 대중들이 자신 주위의 인연을 돌아보고 힐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국내외에서 음성 포교를 펼쳐 온 정율 스님<사진>이 빛고을 광주에 힐링을 전한다. 스님은 광주매일TV 개국 1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3일 오후 3시,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돌아보니 당신'을 주제로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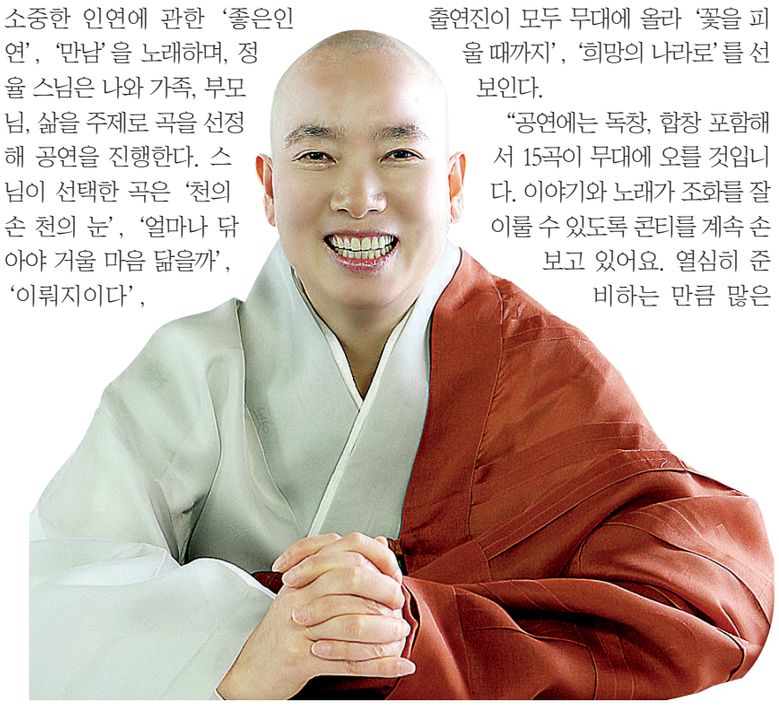
정율 스님의 이번 콘서트는 쌍방향 토크와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다. 스님은 인연을 주제로 사연을 이야기하고 직접 독창과 합창을 하는 방식으로 콘서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합창단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도 이번 공연의 매력이다. 스님이 이끄는 108부다스합창단을 비롯해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마하가섭중창단, 광주 불교계 합창단이 연합한 광주연합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쇳종과 선명상으로 시작해서 '인연'을 주제로 이야기와 노래를 풀어가려 합니다. 앞서 5월에 광주 동원사에서 지역 교육청 의뢰로 '효' 주제 힐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높았는데, 이번 콘서트는 같은 콘셉트를 확대한 것입니다."

12월 3일 광주예술회관서
부다스합창단 등 대거 참여
쌍방향 토크·음악 어우러져
조계종 승려복지에 후원도

스님에 따르면 공연은 쇳송과 선명상으로 시작해 마하가섭중창단이 나를 찾아볼 수 있는 '삼보께 귀의하는 노래(Tisarana)'를 들려준다. 이어 108인 부다스 합창단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소중한 인연에 관한 '좋은인연', '만남'을 노래하며, 정율 스님은 나와 가족, 부모님, 삶을 주제로 곡을 선정해 공연을 진행한다. 스님이 선택한 곡은 '천의 손 천의 눈',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닮을까', '이뤄지이다', '구름 걷힌 달처럼', '무상', '해탈' 등이다. 대미는 희망을 주제로 광주연합합창단, 부다스합창단, 마하가섭중창단 등 출연진이 모두 무대에 올라 '꽃을 피울 때까지', '희망의 나라로'를 선보인다.



"공연에는 독창, 합창 포함해서 15곡이 무대에 오를 것입니다. 이야기와 노래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콘티를 계속 손보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는 만큼 많은 대중들이 콘서트에 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율 스님은 올해로 음성 포교 30주년을 맞는다. 힐링콘서트를 진행하는 이유도 30주년을 맞아 원력을 일반 시민에게 회향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광주 공연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힐링콘서트도 계획 중이다.

"인연이 닿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주제의 콘서트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내년 6월 1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힐링콘서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30년의 원력을 공연을 통해 전하고 싶어요. 여기서 얻은 수익 일부는 조계종 승려복지회에 후원할 계획입니다."

스님은 인터뷰 말미 "주제인 '돌아보니 당신'에서 당신은 부처도, 예수도, 친구도, 나도 될 수 있다"며 인연의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겨울의 입구에서 불교를 대표하는 성악가 정율 스님이 전하는 인연 이야기가 사뭇 궁금해진다.

(062)650-2074, 2078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옛 그림과 미디어 아트의 신선한 '콜라보'

간송재단·백남준아트센터 '간송과 백남준의 만남'展

내년 2월 5일까지 DDP서
작품 간 연관성 찾아 전시
작가들 공통의 이상향 발견



'간송과 백남준의 만남: 문화로 세상을 바꾸다'에 출품되는 백남준의 1980년대 대표작 '코끼리 마차'. 심사정의 '촉잔도권'과 짝을 이룬다.

조선 중후기를 대표하는 화가 연담 김명국·현재 심사정·호생관 최북·오원 장승업과 현대 미디어아트 선구자 백남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낙관적 믿음과 이상향으로 엄혹한 현실을 극복하려 했다는 것이다. 조선화와 현대 미디어 아트의 콜라보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간송미술문화재단과 백남준아트센터는 내년 2월 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배움터 2층 디자인박물관에서 '간송과 백남준의 만남: 문화로 세상을 바꾸다' 전시회를 개최한다.

간송이 소장한 전통 회화와 백남준의 미디어 아트를 연결시킨 전시로 백남준 10주기를 맞아 간송미술문화재단과 백남준아트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협력했다.

두 단체는 각자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출품·전시한다. 간송에서는 조선 중기화단의 대가 연담 김명국과 조선 남종화의 대가 현재 심사정의 대표작들과 함께 기이하고 독특한 품행으로 잘 알려진 조선 후기의 호생관 최북의 산수화 및 인물화, 조선 말의 대표적 화원화가 오원 장승업의 작품들을 출품했다.

백남준아트센터에서도 28점의 작품이 출품된다. 1950년대 독일 플럭서스 활동기의 자료들로부터 1960년대의 기념비적 퍼포먼스 영상인 '머리를 위한 선'과 1970~80년대의 대표작인 'TV 부처'와 'TV 첼로', '비디오 샹들리에 1번', '코끼리 마차' 등 28점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좋은 작품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들의 연관성에 깊은 의미를 두어 작품 간에 연결을 시도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전시에서 백남준의 '코끼리 마차'는 심사정의 '촉잔도권'과 짝을 이룬다. '촉잔도권'은 굽이굽이 험준한 산과 물을 건너 이상향으로 가는 과정을 8m가 넘는 두루마리에 그렸다. 코끼리가 끄는 수레에 TV를 가득 실은 '코끼리 마차'는 장구한 인류사의 발달 과정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사람과 사람의 미래에 대한 작가들의 낙관적인 믿음을 보여준다.

실제, 전시에서 소개되고 있는 5명의 작가들은 공통적으로 이상향을 지향했다. 김명국은 불교의 선과 도교 사상의 이상향을 꿈꿨고, 심사정은 몽환적인 남종 산수로 이상향을 그렸다. 최북은 유유자적한 선비의 이상향을 사랑했고, 장승업은 신선의 삶을 동경했다. 백남준은 동서양 문명의 통섭과 조화를 희망한 이상주의자였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옛 사람들의 이상과 현대 거장의 이상은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내용은 같다. 바로 인간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인류사에 대한 낙관"이라며 "이번 전시회는 예술문화로 세상을 바꾸고 좀더 나은 삶의 방법을 찾고자 했던 이상주의자들의 만남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02)2153-0000

신성민 기자

개구리 알로 풀어낸 '108번뇌' 연작들

불일미술관, 권금영 작가展



권금영 작가의 작품 〈108번뇌〉 연작.

개구리와 개구리 알을 상징으로 인간의 번뇌를 표현한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권금영 작가의 '인생은 달다 그리고 108번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불일미술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신진작가 공모전의 일환으로 열린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권 작가에게는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가의 개인전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108번뇌'를 주제의 연작들로 구성된다. 전시작 108번뇌 시리즈는 개구리와 개구리 알을 인간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들로 판화, 설치와 페인팅 등 다양한 장르의 작업 방식으로 일상에서 부딪히는 아이러니한 순간들과 딜레마적 상황들을 그려내고 있다. 작가는 판화와 회화, 설치의 20여점 작품에서 주로 반복적인 패턴이나 은유의 기법을 통한 상징화를 그 수단으로 이용한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미소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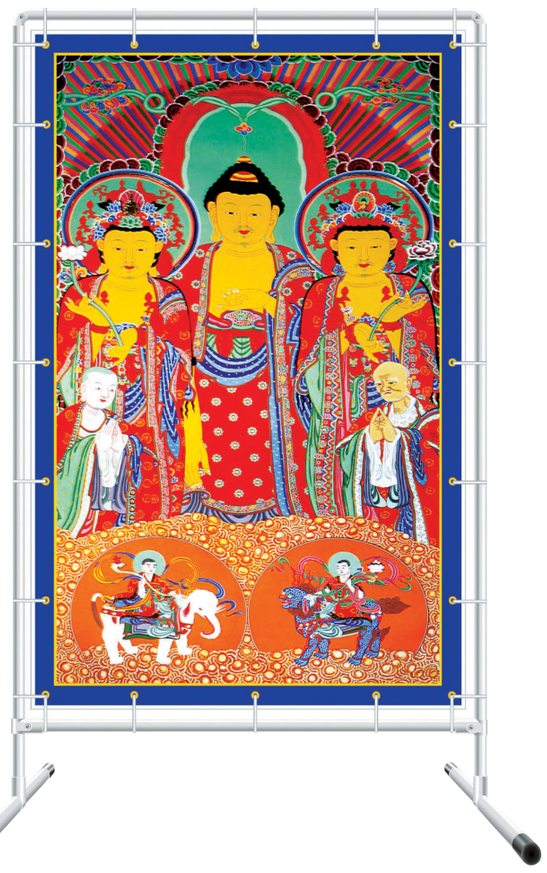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cm × 세로 300cm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매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